

 외교부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	22-033	
배포일시	2022. 1. 19. (수)	담당부서	북미국		
담당자	하위영 / 북미국 심의관 (02-2100-7383)				

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

-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.19.(수) 오전 웬디 셔먼(Wendy R. Sherman)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,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함께 이란·우크라이나·미얀마 상황,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지역 정세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.

- 양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,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하였다.

- 아울러, 양 차관은 이란, 우크라이나, 미얀마 등 주요 관심 지역의 최근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.
 - 최 차관은 1월 초 비엔나 방문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란핵합의(JCPOA)의 복원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고, 셔먼 부장관은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의 관련 협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.

 -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관련 최근 상황을 설명하였고, 최 차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.

○ 양 차관은 미얀마 사태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,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1.15.(토)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4일 만에 가진 오늘 통화에서, 양 차관은 올 해에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미 간 호혜적·포괄적 협력 및 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※ 최근 한미 양국은 금일 한미 외교차관 통화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통화(1.15), 북핵수석대표 통화(1.5, 1.11), 차관보 통화(1.12) 등 고위급 협의를 연쇄적으로 진행. 끝.